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의 책으로 보았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와 2차 귀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면 느헤미야는 3차 귀환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1차 스룹바벨과 2차 에스라의 귀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 뒤에 나오는 에스더서의 시대는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느헤미야는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시간이 흘러 바사 왕국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수산 궁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에게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있고 성문은 불에 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왕 앞에서 수심이 깊은 얼굴을 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백성의 방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격려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느헤미야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들인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이러한 계획을 듣고 업신여기고 비웃어가며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략을 세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업신여기며 비웃는 말을 할 뿐 아니라 함께 예루살렘을 쳐서 그곳을 요란하게 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성벽 건축을 이끌고 있는 느헤미야에 대한 악의적인 거짓말로 올무를 놓아 건축을 방해하려는 시도도 하였습니다. 지난 번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에도 역시 그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방해는 가만히 보면 상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건축에 동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에

스라서에서 보았듯이 여러 가지 억측을 가지고 왕에게 고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보고 있듯이 거짓 주장을 하며 올무를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려 성벽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건축되었고 오늘 느헤미야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은 건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건축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루살렘 성전은 중간에 오랜 기간 중단도 되고 우여 곡절을 겪으며 건축하였지만 오늘 느헤미야서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52일 만에 끝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감싸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평안한 상황에서도 52일 만에 마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의 방해를 받으며 52일 만에 마쳤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대적하는 사람들의 방해를 막아야 했고 동시에 성벽을 건축하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건축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방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된 것입니다.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이 되자 오히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던 모든 대적들과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적들과 이방 민족들조차도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며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우리가 에스라서에서도 함께 나누었듯이 오늘 느헤미야서에서도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방어하는 일을 병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늘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하며 기도하며 격려할 때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천국과 같은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한 손으로는 성벽을 건축하며 한 손으로는 대적하는 자들과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고단한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낙심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만이 기뻐하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 안에 성벽 세우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마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둘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사탄 마귀를 과소평가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게으르면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손으로는 성벽을 세우고 한 손으로는 대적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